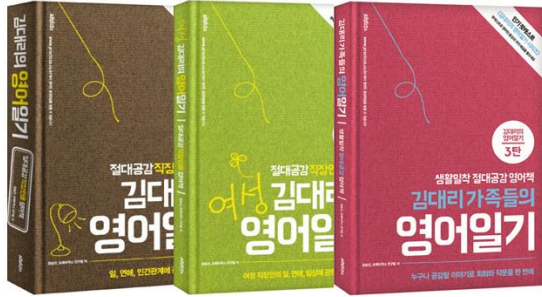


함께 쓰는 영어 일기 2

<광고>



In Day-to-Day Use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학습 효과 Up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학습 효과 Up

프라하에서의 네 번째 날. 서유럽에 비교한다면 체코는 관광객의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많았다. 그리고 동양사람이 적다. 한국에서 온 내가 완전하게 이방인이 된 느낌이어서 좋았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늘은 꽤 눈이 일찍 떠져 아침조깅을 했다. 새벽 6시 반 즈음이라서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공원이 보이길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언덕을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남루해 보이는 노숙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 공간에 나와 저 노숙인 뿐인데, 그가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지켜줄 누군가도 없을뿐더러,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노숙인을 만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노숙자가 잠에서 깨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노숙자가 느끼지 않게 조용히 공원을 빠져 나왔다. 이 도시에서 내가 마치 투명 인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 혼자 오버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겁이 나는 순간이었다.

This is my fourth day in Prague. Compared to Western Europe, tourists in the Czech Republic tend to look a bit older. I've been seeing so many older people here. And Asian tourists are very rare; I like the feeling that as a Korean I can feel like a perfect stranger here. Nobody knows who I am, nor do they care what I'm doing here. Having woken up a little early today, I went out for a jog. It was 6:30 a.m., so it was still early even for those who were having their morning exercise. Seeing a park, I went up the hill to breathe in some fresh air there. Suddenly, a homeless man in ragged clothes came into sight. I was scared, as I was all alone with him in the park. What if he threatens to do something violent to me? Nobody will help me, and there won't be any witness. It was a totally different kind of fear from what I have when I encounter the homeless in Korea. He seemed to be waking up, sensing that someone was near him; but I managed to sneak out of the park without him noticing me. I had thought that I was like an invisible person in this city, which was never the case. Maybe I was just overreacting, but that was a really scary moment.

프라하에서의 네 번째 날.

This is my fourth day in Prague.

서유럽에 비교한다면 체코는 관광객의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Compared to Western Europe, tourists in the Czech Republic tend to look a bit older.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많았다.

I've been seeing so many older people here.

그리고 동양사람이 적다.

And Asian tourists are very rare;

한국에서 온 내가 완전하게 이방인이 된 느낌이어서 좋았다.

I like the feeling that as a Korean I can feel like a perfect stranger here.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Nobody knows who I am, nor do they care what I'm doing here.

오늘은 꽤 눈이 일찍 떠져 아침조깅을 했다.

Having woken up a little early today, I went out for a jog.

새벽 6시 반 즈음이어서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It was 6:30 a.m., so it was still early even for those who were having their morning exercise.

공원이 보이길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언덕을 올랐다.

Seeing a park, I went up the hill to breathe in some fresh air there.

그런데 갑자기 남루해 보이는 노숙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Suddenly, a homeless man in ragged clothes came into sight.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 공간에 나와 저 노숙인 뿐인데, 그가 나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지켜줄 누군가도 없을뿐더러,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I was scared, as I was all alone with him in the park. What if he threatens to do something violent to me?

Nobody will help me, and there won't be any witness.

한국에서 노숙인을 만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It was a totally different kind of fear from what I have when I encounter the homeless in Korea.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노숙자가 잠에서 깨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노숙자가 느끼지 않게 조용히 공원을 빠져 나왔다.

He seemed to be waking up, sensing that someone was near him; but I managed to sneak out of the park without him noticing me.

이 도시에서 내가 마치 투명인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I had thought that I was like an invisible person in this city, which was never the case.

어쩌면 나 혼자 오버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겁이 나는 순간이었다.

Maybe I was just overreacting, but that was a really scary moment.